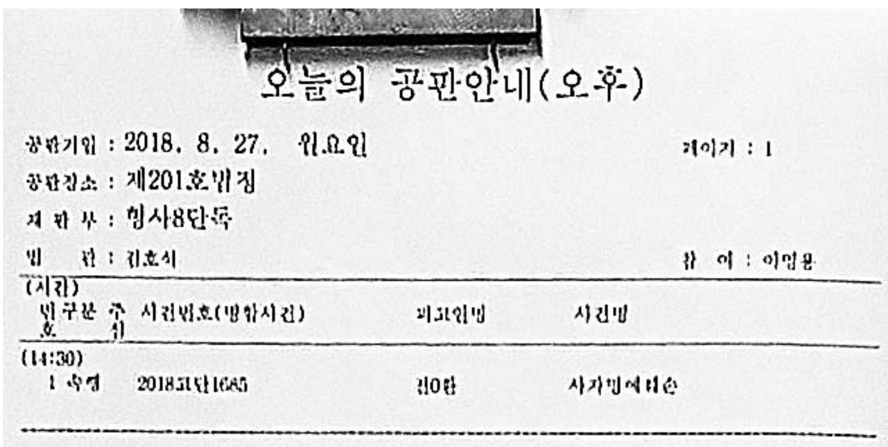
치매 핑계에 헬기사격 모르쇠…재판부 강제구인 검토

전두환 끝내 불출석한 채 재판

'치매인데 회고록 집필?' 의문
증거 명백한 헬기사격도 부인
건강 이상 불출석 사유 안돼
전두환 버티기 땐 재판 난항


오늘의 공판안내(오후)

공판기일 : 2018. 8. 27. 월요일 페이지 : 1
공판장소 : 제201호법정
재 판 부 : 형사8단독
법 관 : 김호석 참 여 : 이명윤
(시간)
번 구분 순서 사건번호(병합사건) 피고인명 사건명
(14:30)
1 속행 2018고단1685 전0환 사자명예훼손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201호법정 앞에 공판 안내가 게시돼 있다. 전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7일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된 첫 공판(재판)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알츠하이머 발병 시기와 5·18 당시 헬기기총 소사 여부 등이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고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변호인측에 "전 전 대통령 주장대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면,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을 쓸 수 없었지 않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에 대해 "회고록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2013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며 "가족들이 2013년 (전 전 대통령의)이상 증세를 보고 병원에 가서 검진했더니 알츠하이머를 확인했다. 증세가 더 악화하기 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급하게 출간하게 됐고, 일부는 이전에 초고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나기 전부터 회고록을 썼다'는 정 변호사의 이번 주장은 올해 초 검찰(광주지검)이 소환통보를 했을 당시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회고록은 민정기 전 비서관이 집필해 책임이 없다"고 밝힌 의견과 상충하는 것으로, 향후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김 판사는 변호인 측에 "피고인이 출석은 안했지만,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할 예정인지, 또는 불인정할 예정인지 정도는 답해 달라"며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 변호사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게 목격자들의 증언들"이라면서 "당시 헬기 조종사나 승무원의 명단이 확보됐고, (이들은) 한결같이 헬기에서 기총소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목격자의 진술과 조종사의 진술이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재판에서 다퉈보겠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5·18당시 헬기기총소사 여부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검찰 등은 각종 기록과 증거 등을 통해 헬기기총소사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전 대통령측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정 변호사는 또 앞으로도 불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장 질문에는 "재판 후 소상히 파악해 답을 드리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같은 정 변호사의 답변으로 미뤄 앞으로도 건강 문제,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부담감 등을 들어 불출석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사항이어서 불출석하면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받지 않을 경우 재판을 진행해도 재판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서고 있다. 특별한 이유에는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 이유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은 현재로선 강제구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변호사는 "실제 강제 구인 사례가 거의 없다. 특히 고령인 전직 대통령이 치매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인장을 발부한다 해도 강제구인으로 재판정에 서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분간 소환장 통보 절차를 밟아 출석요구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회고록 1권·484쪽)'라고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왼쪽에서 두번째)신부가 '5·18 관련 전두환 형사 재판' 첫날 광주지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5·18 학살 주범 반드시 법정 세워 준엄한 심판 받아야"

전두환 불출석 정치권 반응

"광주시민들에 용서 구하고 마지막 사과할 수 있는 기회"

27일 정치권에서는 피고인 전두환의 '광주 법정' 불출석에 대한 비판과 그의 법정행 빌미가 된 회고록 작성 배경에 관한 의구심이 쏟아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두환씨는) 오늘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도 용서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불출석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21일 광주일보에 "법절차를 따르겠다. 오는 27일 광주지법 법정에 서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23일에는 측근을 통해 광주일보에 "사실 5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 출석이 불확실하다"고 하더니, 공판을 하루 남겨둔 지난 26일 느닷없이 부인 이순자씨를 통해 "광주 법정을 믿지 못하겠다. 알츠하이머 투병이라 건강이 염려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씨는)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 공수부대를 광주로 보내 잔인한 학살을 저지른,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민주유공자이기도 한 이 대표는 이날 시종 전 전 대통령을 '전두환씨', '전두환'라고 부르며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하다면 가족이나 참모들은 병을 핑계로 침묵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것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자서전에 광주 5·18때 시민 시위 배후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투입됐다는 내용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집어넣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0년 당시 모든 정보를 쥐고 있던 그는 자서전 발표 전에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만원(5·18을 상습적으로 왜곡하는 극우인사) 류의 북한개입설을 터무니없다고 무시해왔다"며 "그런데 기억이 온전치 않은 시기에 완성된 자서전에 평소 주장과 정반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것"이라고 재차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가족과 측근들은 이 조작의 주체와 목적을 밝히고 국민, 특히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도리이며, 마지막 사과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시험지 유출' 고교 행정실장·학부모 구속기소

고3 내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광주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와 학부모 B(여·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0일과 7월 2일 이 학교 학생인 B씨 아들의 성적을 조작하고자 올해 3학년 1학기 이과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통째로 빼돌려 교육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빼돌린 시험문제를 정리,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제공해 미리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

A씨에게는 시험지 원안을 빼내려고 학교 시설물에 무단 침입하고(건조물침입죄),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가 추가됐다.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대가성, 학교 윗선 개입, 외부인 도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해수욕장 인근 잇단 사고…낚시객 숨지고 갯바위 고립

완도해경은 "지난 26일 오후 5시10분께 완도군 조약도 가사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이모(46)씨가 숨진채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사고 당일 오후 4시 30분께 해수욕장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중 아내에게 "갯바위 쪽을 둘러보겠다"고 말한 뒤 나선 후 연락이 끊겼다.

앞서 26일 오후 4시10분께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는 김모(40)씨와 이모(여·45)씨가 윈드서핑을 즐기던 중 너울성 파도에 밀려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영화같은 절도…결국 철창행

쌍나팔

○…광주의 한 도매상가 건물에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절도범 일당이 열쇠수리공까지 범행에 동참시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철창행.

○…2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6)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도매상가 건물 4층 주택에 침입해 업주 A씨가 보관 중인 현금 1억47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평소 해당 건물을 자주 드나들던 김씨 일당은 현금 보관 장소와 A씨 부부가 매주 교회를 간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은 자신들이 찍힐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렌즈 앞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고, 도주 차량에는 번호판에 페인트까지 칠하는 등 완전 범죄를 노렸다"면서 "CC-TV 추적기법으로 범행차량을 뒤쫓은 끝에 김씨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외국에 체류 중인 공범 정모(46)씨에겐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라고 설명. /김용희 기자 kimyh@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융3억)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융 2천)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융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융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대신경매
◐ 경매교육 ◐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8월 개강 선착순 모집 ★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문 491평 ▶ 감정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정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정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정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토지 기타 추천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정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정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감정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죽동 (98평) ▶ 감정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정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감정가 9억3천 → 최저가 9억3천	① 서구 쌍촌동 현대아파트 (40평) ▶감정가 2억8천 → 최저가 2억	⑥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1,999평 건2,490평 ▶감정 6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6평 건427평) ▶감정가 12억8천 → 최저가 7억1천9백	② 광산구 수완지구 수완리채 (32평) ▶시세 6억 → 최저가 4억2천	⑦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506평 건526평 ▶감정가 12억 → 최저 9억8천
③ 서구 치평동 (3층상가) 103평 ▶감정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아파트 (25평) ▶감정가 1억8천 → 최저가1억2천	⑧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④ 북구 용봉동 (12층중 6층) 117평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④ 첨단2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감정가 3억5천 → 최저 3억5천	⑨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⑤ 북구 양산동 (근린상가) ▶감정가 4억4천7백 → 최저가 4억4천	⑤ 광산구 운남동 남양아파트 (24평) ▶감정가 1억6천 → 최적 1억1천	⑩ 남구 백운동 (빌라) 토65평 건145평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함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